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열



이제 곧 새 학년도와 새 학기가 시작된다. 이 무렵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비교할 때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는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그러나 지적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전인교육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전인이란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부하는 습관과 기초적인 학력을 튼튼하게 길러주기...

학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르침의 결과가 학업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학교를 좋아한다.

이른바 학교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잠재적 능력이 좋은 학교의 교육을 통해 더욱 더 개발되기 때문에 학교 이외의 교육에 덜 의존하게 되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주 '공천 킬' 부작용 차단 대책 있어야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후보자 공천 경선과 관련해 '동원 선거', '돈 선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각 후보 캠프가 동원능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 아래 치열한 선거인단 확보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실이다. 일부 농촌지역 예비후보들이 100% 여론조사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우리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동원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하면 선거인단 모집에 돈이 오갔다는 소문과 명부 거래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제2순환로 통행료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광주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민간 구간 통행료를 구간별로 소형차는 200원, 중형 300~800원, 대형은 4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단이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와 '최소영수입보장'이라는 불공정계약까지 하면서 재정보전금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의로 칼럼



정진욱

아득한 옛날부터 유럽의 시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찬미해 그 매혹을 노래했다. 긴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머릿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의 로망으로 여겨져 있다.

빠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자라나는 순환, 즉 모발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빠진 만큼의 모발이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양의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없어지고 술이 적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탈모증이 진행되면 얼굴의 윤곽이 약해지거나 변형이 오고 실제보다 늙어보이기도 한다.

가 늘면서 탈모증 발생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식생활의 개선으로 탈모증은 물론 성인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백미보다는 섬유질과 비타민B가 많은 현미나 잡곡이 탈모증과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머리 여인

기고



유순남

최근 동급 학생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피해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연달아 불거진 후 여기저기서 토론과 여론들이 들끓자 결국 지난 6일 김홍식 국무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면 징징계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가해학생에게는 재활프로그램을, 가해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을 시키며, 시 군 구 단위의 '학교폭력지역사회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시도 단위의 'one-stop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일진경보제' 도입으로 경찰을 개입시켜 발본색원한다는 내용이다.

만인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공간이던 학교가 점점 더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담화문 말미에 "체육 예술교육과 독서활동 교육을 대폭 늘려가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기치로 두겠다."는 말이다.

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가 경제선진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향할 때 국민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환자 생각 않고 응급실 의사 협박해서야

며칠 전 주말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아이와 부딪혔다. 상태 아이는 차이를 심하게 다쳤고 우리 아이는 그 치아에 이마를 찌려 상처가 깊게 났다.

아이들 둘을 응급실로 데려가 접수할 시킨 후 앉아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를 들쳐 멘 젊은 남자가 응급실로 막 들어왔다. 아주머니를 살피며 담당자가 의사에게 보고하고 의사가 와서 보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를 업고 들어온 남자가 잠깐 기다리라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이 \* \* \* 이라며 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질렀다.

로 제한된 의료장비를 가지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가까스로 그 보호자를 달래고 난 뒤 그 아줌마를 서둘러 치료하기는 했는데 정말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無等鼓

다산은 '신아구방(新我舊邦·혹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함)'이라고 해 국가의 전면적 개혁을 꿈꿨다. 그의 이상적 지도자상은 개혁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 기반엔 '위국애민(僞國愛民)'이 있었다.

들이 생기게 된다. MB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위한 인사를 했다. 편하게 슬 사람을 고르고 보호해왔다. 그 인사 때문에 '불통 대통령', '불통 정권' 이미지가 굳어졌고 레이턴의 가속 궤도를 밟고 있다.

人事는 萬事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